

'힌남노' 내습... 제주섬 완전 고립

태풍경보 발효되며 어제부터 하늘길·바닷길 끊겨 공항공사 "태풍 상황 유동적... 6일까지 운항 차질"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태풍이 6일 오전 제주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강한 비바람을 지닌 태풍인 만큼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국제공항에 태풍경보와 급변풍·호우특보가 내려져 이날 오후 2시 이후 제주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했다.

이에 앞서 역대급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일부 항공사들이 미리 결항을 결정하면서 이날 운항 예정

이었던 제주 기점 국내선 왕복 항공편 320편은 전날 사전 결항 조치됐다. 제주공항에는 6일 낮 12시까지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항공기 재운항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를 오가는 바닷길도 통제됐다. 제주 전 해상에 풍랑 특보가 내려지면서 이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9개 항로 12척의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공항공사 관계자도 "태풍의 상황이 유동적인데다 강한 비바람으로 6일까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정기자



5일 항공편이 결항된 제주국제공항 모습(사진 맨 위)과 빗물에 쓸리는 피해를 입은 대정읍 하모리 감자 모종(두 번째).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지류에 물이 불어나고 있다(세 번째).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에 저류지에 갇힌 소 한마리(사진 맨 아래·독자제공). 이상국기자

농경지 침수·파손 피해 속출

도·소방당국 오후 4시 기준 제주전역서 77건 피해 신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며 제주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농경지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총 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2시쯤에는 서귀포시 신호동에서 맨홀과 배수로가 역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34분쯤에는 서귀포시 상례동의 가로수가 강한 바람에 쓰러져 도로를 막아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농경지와 과수원 등의 침수 피해도 있었다. 5일 낮 12시 42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과수원이

침수돼 긴급 배수지원이 진행됐다.

이보다 앞선 오전 8시22분쯤에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농경지가 침수돼 배수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집중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며 도로 피해도 이어졌다.

오전 8시9분에는 제주시 외도1동의 도로가 침수됐으며 오전 9시 41분에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철거 조치됐다.

또 제주시 이도2동에서도 오후 1시26분쯤 제일중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방면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강한 비바람에 쓰러져 철거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인력 666명과 장비 166대를 동원해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 고립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은 7명을 구조했으며 안전조치 39건, 예방활동도 83회 실시했다. 또 348t 배수 지원을 했다. 김도영기자

태풍 영향 초·중·고 등교중지

교육청 비상대책회의 "학생 안전 최우선으로"

역대급 태풍이라는 '힌남노'가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모든 학교가 등교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제11호 태풍 북상으로 인한 원격수업을 시행한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 전체 310곳 중에서 282개교(91.0%)에 이른다. 유치원 10개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28개교(9.0%)는 휴업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일만 해도 5일 원격수업을 선택한 학교는 총 226개교(72.9%), 휴업 10개교(3.2%)였다.

6일에도 전체의 89.6%인 278개교가 원격수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24개교(7.8%)는 휴업한다. 나머지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5개교 등 8

개교(2.6%)는 등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태풍과 관련 도교육청은 5일 주간기획조정회의를 태풍 대비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재난대응체계, 학사운영, 돌봄교실, 교육시설 안전 등에 대한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선제적으로 재난 대비 비상체제에 돌입해 지난 2일부터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5일자로 태풍경보가 발령되면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태풍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각 학교마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선희기자

■ 도교육청, 2023학년도 고입 전형 세부계획 발표 평준화 일반고 2929명 선발... 8학급 증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

내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정원은 총 292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2023학년도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부계획에 따르면 전기모집 학교는 특목고(제주과학고, 남녕고 체육과,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특성화고(6개교,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과(3개교, 일반전형)가 해당된다. 후기모집 학교는 평준화 일반고(8개교), 비평준화 일반고(14개교), 특목고(제주외고)로 나뉜다.

유형별 모집 인원은 일반고 5117명(평준화고 2929명, 비평준화고 2188명), 특목고 260명, 특성화고

1405명 등 30개교 총 6782명이다. 이 중 평준화고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수 증가 영향으로 2929명으로 모집 정원이 늘면서 2023학년도에 총 8학급을 증설한다. 비평준화고는 10학급을 증설하게 된다.

전기모집 학교 중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원서 접수는 12월 9~12일 실시된다. 후기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4~16일로 정해졌다. 학부모교원과 자녀의 동일 학교 근무 제한 등을 원칙으로 배정이 이뤄진다.

올해는 특히 교육부 지침에 맞춰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를 제외한다는 방침이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과 연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2023학년도 제주도 고입 전형에서 체육특기자 선발 인원은 체육과가 설치된 남녕고 40명을 포함 17개교 141명으로 파악됐다. 전선희기자

협찬 : 티웨이항공

2억보증보험가입

(단기회)
제주-오사카직항 특별전세기 특가여행 9월 29일
오사카, 교토 3일
849,000원

특전

- 제주-오사카 직항
- 전일정 준특급호텔 사용
- 일본내 PCR검사비용 포함
- 일본비자 대행서비스
- 일본전문가이드

일정

1일차 - 제주출발 13:35 - 오사카도착 15:25 - 신사이바시, 도톤보리관광 - 석식 및 호텔투숙
2일차 - 도게초교 - 대나무숲길 - 노노미야신사 - 금각사 - 청수사 - PCR검사 - 석식 및 호텔투숙
3일차 - 오사카성 - 오사카출발(13:00) - 제주도착(15:00)

포함사항 : 항공료/유류할증료/TAX/숙박료/차량료/식사비/입장료/여행자보험/가이드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 20,000원, 그외 개인용품

파랑새여행사 757-2240 누리여행 758-5400 늘푸른여행사 726-3344